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카리모프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과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의 우의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5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각하께서 베풀어 주신 환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포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 대한 각하의 배려와 관심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한 티무르 제국의 중심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은 인류 역사에 남을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앞장서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공업 육성 등을 통해 매년 6%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하며,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두 나라는 수교 14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각하께서는 네 차례의 방한을 통해 이러한 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중앙아시아의 최대 시장이며 20만 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여러 곳의 석유·가스전 탐사와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정보통신, 섬유, 금융, 교육, 문화, 관광 등에 있어서도 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더 많은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두 나라 국민은 함께 일하고 같은 드라마를 즐기는 가까운 친구입니다. 오늘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한 것을 계기로 두 나라 간 실질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우즈베키스탄의 발전,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